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8, Vol. 14, No. 1 (특집호), 167～186.

한국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요인 분석

정 종 진†

대구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의 관점에서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습동기 요인의 구성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행동에 관련된 동기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이끌어내고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이고 그러한 학습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그 원인을 문항으로 하는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학습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국에 걸쳐 지역을 고려하여 7개 도시에서 무선 표집한 초등학교 4～6학년 856명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의 원인에 관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유용성, 흥미, 인정, 지식획득, 기대충족의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유용성-흥미-인정-지식획득-기대충족의 순으로 5가지 요인이 나타났고, 여학생은 흥미-유용성-보상-인정--기대충족-경쟁의 순으로 6가지 요인으로 나타나 남녀간 요인수와 요인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요어 : 학습동기, 암묵적 이론

† 교신저자 : 정종진, 대구교육대학교
E-mail : jjjeong@dnue.ac.kr

www.kci.go.kr

서 론

학습동기란 학습활동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 열심히 하려는 경향(Woolfolk, 1998) 혹은 학습활동을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의도한 학습목표를 성취하려는 경향(Brophy, 1998)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무엇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 관련된 활동과 과제에 참여하게 하느냐는 바로 학습동기에 대한 질문이다. 즉, 학습동기 이론은 학생의 학습관련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학습동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학습동기는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첫째, 학습동기는 각성상태, 즉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으로 정의된다. 둘째, 학습동기는 학습행동을 조절하는 힘, 즉 학습행동을 시작시키고 학습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학습행동의 지속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학습동기는 학습에 대한 활력소(energizer)의 기능과 조절자(regulator)의 기능을 갖는다(김아영, 2002).

적절히 학습동기가 유발된 학생들은 학습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으며(Ritter, 1988), 학습에 몰입되어 있고,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열성적이며, 더 많은 학습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과 좌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에 대해 더 좋게 느낀다고 한다(Skinner & Belmont, 1993). 다시 말해서, 학습동기가 충만 된 학생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지한 활동이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그 결과 좋은 학업성취를 달성하게 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학습동기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 학습전략의 활용, 학습에 대한 만족감 등과 같은 학생들 개개인의 성취행동에서부터 학업성취수준에 이르기까지 학습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이은주, 2000).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규정하기보다 왜 공부하는데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최대한의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동기화시켜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학습맥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Stipek, 1998).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즉 학습동기의 요인을 알아야 한다.

학습동기에 관한 여러 이론과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의 요인, 즉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생 자신들이 학습활동을 왜 하려고 생각하며 또 실행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보상(강화)이나 유인체계와 같은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학습행동이 유발된다고 설명하고, 개인의 욕구나 내적 상태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는 학생들의 내적 자원, 즉 유능감, 자존감, 자율성, 자아실현 등을 격려해주는 것이 학습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며,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학생들의 계획, 목표, 기대, 귀인과 같은 사고에 의해 학습행동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또 내재적 동기이론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 호기심, 성취감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학습행동이 유발된다고 설명하며, 목표이론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목표에 대한 목표의식이 학습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에도 학습동기 이론에 따라 학

www.kci.go.kr

생들의 학습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학습된 무력감, 자기가치감, 자기조절신념, 몰입경험 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습행동이 동기화되는 모습을 명시적 이론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명시적 학습동기 이론에서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한국 교육상황에서 실제로 학생 자신들이 어떤 이유 혹은 요인에 의해서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의 관점에서 그 동기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 자신들이 왜 학습행동을 하려고 생각하며 왜 실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행동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이해와 학습동기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습동기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김용구, 1999; 김옥분, 2001; 심우엽, 2002b; 이동희, 2002; Eccles et al., 1993)가 있는가 하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권대순, 2000; 김지연, 2000; 유효현, 2000)도 있어 학습행동에 관련된 동기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습동기 요인의 구성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행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동기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와 가정에서 학습지도 및 학습상담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론적 배경: 암묵적 이론과 학습동기

인간은 표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즉 개인들의 삶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표상하는 것 중에서 오히려 표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간의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권준모, 2002). 대표적으로, 동기의 귀인이론에서는 실제 행동의 순수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각하는가가 동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실제 이유보다는 이 학생 자신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가 심리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실제 행동의 원인보다는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구성 혹은 믿음 체계로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특히 심리학자들이 문헌을 통해 제시하는 공식적인 이론인 명시적 이론(explicit theory)과 비교되는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에 대한 연구들이 암묵적 심리과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승적으로 진행되었다. 암묵적 이론이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이론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론이다. 암묵적 이론을 연구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공직적 이론의 형태와 내용을 이해하려는 것이며, 암묵적 이론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발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론을 캐내어 재구성하려고 한다(Sternberg et al., 1981; 양수정, 1997).

www.kci.go.kr

암묵적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과거의 객관적 변인의 규명을 탈피하여 주관화된 객관적 변인들의 차이를 통해 인간행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Chiu 등(1997)의 도덕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도덕성을 측정하기보다는 도덕성의 속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어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인지적 및 동기적 요소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암묵적 이론에 대한 연구들 중 학습동기와 가장 관련성이 많은 것은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다. 지금까지 지능의 연구에서 중요한 흐름은 실제 순수 지능이 있으며, 어떻게 그 순수한 지능을 밝혀내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지능의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 이론에 맞는 지능검사를 개발하고,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Sternberg(2000)는 오히려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들이 다양한 성취상황에서의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암묵적 이론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즉, 순수 지능 그 자체보다는 순수 지능을 아는 것, 그리고 지능의 속성에 대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다양한 동기적 패턴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권준모, 2002 재인용).

1980년대 초 Bandura와 Dweck는 학생들이 지능에 대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암묵적 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들은 지능이 안정적이고 변화될 수 없다고 믿는 고정적 이론가(entity theorist)와 반대로 지능은 연습이나 노력에 의해 확장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증가적 이론가(incremental theorist)로 구분하였다(Dweck & Leggett, 1988). 학생들이 지능에 대한 이러한 암묵적 이론 중에서 어느 이론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과제선택, 노력, 결과에 대한 귀인, 학습된 무력감, 자기조절학습 등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동기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학습동기 분야에서 암묵적 접근 방법이 적용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2편(김성수, 2001; 허숙행, 2004)이 있다. 김성수(2001)의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 5학년 351명, 중학생 2학년 380명, 고등학생 2학년 35명, 대학생 2학년 324명을 대상으로 학습 및 취미 활동에 관련된 동기화 요인을 암묵적 이론 접근을 통해 밝혀냈다. 학습활동의 동기화 요인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인정, 흥미, 필요성의 3가지 요인, 중학생의 경우 인정, 흥미, 유용성, 지식획득의 4가지 요인, 고등학생의 경우 인정, 흥미, 유용성, 벌의 4가지 요인,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흥미, 유용성(현재), 유용성(미래), 벌, 경쟁의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허숙행(2004)의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 5학년 1,168명으로 대상으로 암묵적 접근에 의해 교과학습활동의 동기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교과학습활동 동기화 요인으로 유용성, 흥미, 인정, 의무, 기대의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동기화 요인의 수와 구조에서 남녀별 차이는 없지만 일부 요인에 있어서 상대적 기여도가 다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암묵적 이론과 학습동기에 대한 암묵적 접근의 연구는 학습동기라고 하는 특정한 심리적 구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현재의 명시적 학습동기

www.kci.go.kr

이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하면 포한해야만 하는 어떤 측면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명시적 학습동기 이론을 보다 보완, 확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비록 학습동기 구인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혹은 암묵적 이론이 왜곡되거나 지나치게 과대 혹은 과소평가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암묵적 이론에 대한 문화적, 지역적인 특성 반영은 기존 학습동기 구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보다 생태학적으로 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자료를 통해 기존 학습동기 이론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현실과 덜 관련된 개념을 보다 현실과 관련시켜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동기에 대한 암묵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김성수(2001)와 허숙행(2004)의 연구가 특정 지역과 특정 학년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친 표집을 통해서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을 암묵적 접근에 의해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암묵적 이론 접근은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이론을 이끌어내는 일이며, 다음엔 그 이론의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행동에 관련된 동기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이끌어내고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이고 그러한 학습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그 원인을 문항으로 하는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학습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학습활동에 대한 조사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469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가장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학급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두 가지만 적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수학(28.8%), 과학(13.9%), 영어(12.8%), 사회(12.6%), 체육(11.7%), 국어(10.8%)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수학(28.9%), 영어(17.4%), 국어(11.5%), 음악(9.3%), 사회(9.1%), 미술(6.4%)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활동의 동기 요인에 대한 조사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478명을 대상으로 앞에서 조사된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학습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왜 이런 학습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즉 학습동기의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한 가장 열심히 하는 이유부터 차례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쓰게 하였으며, 순간적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응답시간은 5분 정도로 제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조사대상자의 학급담임교사에게 조사목적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뒤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였

www.kci.go.kr

으며, 학생들이 질문지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응답자가 같은 내용을 두 번 대답한 경우에는 그 중 한 가지를 제거하였으며, 10명 이상의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목록화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즉 학습동기의 요인은 30가지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의 요인으로 대답한 내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빈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목록화된 내용은 같았다.

학습동기 요인 탐색을 위한 검사도구 제작

학습활동의 동기 요인 조사에서 수집된 학습동기 요인 목록을 토대로 학습동기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검사도구 문항의 한 예로서, 학습활동의 동기 요인 조사에서 수집된 목록 중에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 목록은 '내가 열심히 학습하는 이유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문항이 된다. 검사도구의 문항은 총 30개 문항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담임을 맡고 있는 2명의 초등교사로부터 문항 검토를 받았고,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0명에게 읽게 하여 어려운 단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수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하였고, 피검자들에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열심히 학습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5단계 중 하나에 ○표를 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대해 '아주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아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채점하였다.

학습동기 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처리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지역에서 각각 1개 초등학교의 4~6학년 각 1개 학급을 무선표집에 의해 선정한 856명(남449 여 4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의 동기 요인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30개 문항의 학습동기 요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는 조사대상의 학급담임 교사가 실시하되 학교공부나 어떤 학습활동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였지만 검사도구의 성격상 정답이 있는 능력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규제를 엄격히 제한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여유를 더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읽고 빨리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처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8.54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다른 분석은 SPSSWIN 12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습동기 요인

필요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

www.kci.go.kr

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기 요인에 대한 도식을 보면 그림 1과 같고,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림 1과 표 1에서 보듯이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의 분석을 위해서 5개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 도표(scree plot)에서 급한 경사가 완만해지는(이순목, 1995; 양병화, 1998) 지점이 다섯 번째 요인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은 5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분산의 52.3%를 설명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요인 검사 문항을 직교회전 후 요인행렬을 나타낸 것으로 5개 요인을 기준으로 삼고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법에 의해서 요인을 추출한 뒤에 가장 안정적인 요인 구조를 추출하기 위하여 베리멕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통해서 요인을 직각 회전시켜 최종 요인행렬을 구한 결과 표 2와 같다.

요인 I 은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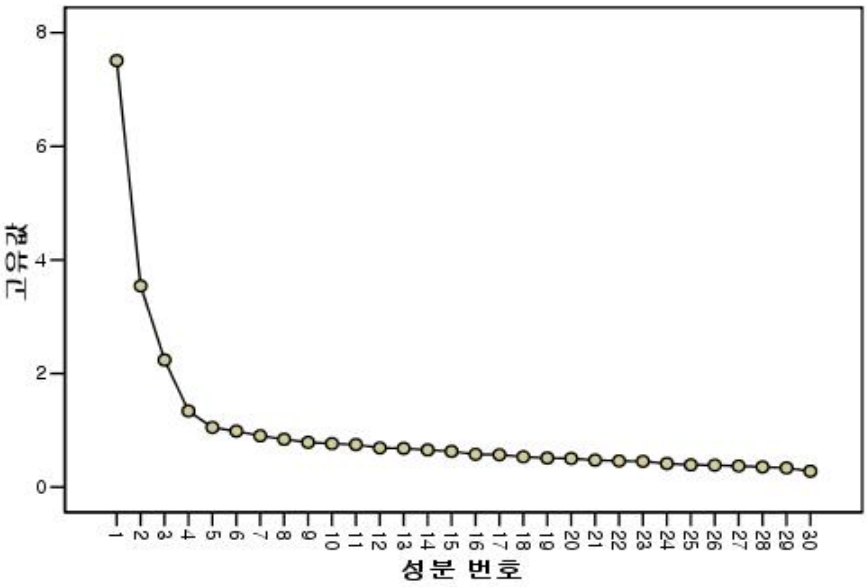

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스크리 도표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고유치	설명분산(%)	누적설명분산(%)
I	7.509	25.032	25.032
II	3.543	11.809	36.840
III	2.239	7.462	44.302
IV	1.341	4.468	48.771
V	1.051	3.502	52.273

www.kci.go.kr

표 2. 요인구조 및 요인계수

문 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712**	.074	.023	.007	.189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695**	.081	-.078	.272	.067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674**	.004	.199	.108	.062
장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669**	.193	-.113	.111	.035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620**	.167	-.010	.274	.231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618**	.194	.008	.033	.311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482**	.046	.258	.168	-.009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087	**.841**	.010	.122	.050
공부가 내 적성에 맞아서	.139	**.816**	.064	.056	.061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093	**.788**	.025	.103	.078
공부하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162	**.669**	-.050	.335	.137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041	**.580**	.024	**.479**	-.079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024	.047	**.710**	-.196	-.023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113	.219	**.709**	-.051	-.049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088	-.071	**.669**	.162	.139
못하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044	-.115	**.614**	.296	.150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037	.120	**.603**	-.010	**.397**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501**	-.160	**.511**	.056	-.070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282	.087	**.463**	.061	.306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	-.045	-.190	**.457**	.052	.346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081	**.436**	-.063	**.611**	.107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85	.315	-.020	**.611**	.162
실력을 쌓기 위해서	.319	.289	.048	**.594**	.129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264	-.061	.357	**.525**	.176
공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70	.326	.012	**.430**	.173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276	.093	.309	**.393**	.196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114	.098	.115	.133	**.702**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233	.034	.173	.326	**.614**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249	.062	.223	.022	**.544**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096	.341	.003	.294	**.412**
고유치	7.509	3.543	2.239	1.341	1.051
설명분산(%)	25.032	11.809	7.462	4.468	3.502
누적설명분산(%)	25.032	36.840	44.302	48.771	52.273

www.kci.go.kr

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장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Ⅰ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미래의 보다 나은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이 학습활동에 동기가 유발되는 것은 미래의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Eccles 등(1983)이 말하는 유용성 가치(utility value)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유용성 가치는 과제 그 자체(예: 직업목표)와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과제에 대한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화학과 생물학 공부는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상당한 유용성 가치가 있을 것이다(Stipek, 1998). 따라서 요인Ⅰ은 초등학생들이 미래의 생활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유용성 가치 때문에 학습활동에 동기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유용성' 요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요인Ⅱ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가 내 적성에 맞아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문항은 요인Ⅳ(지식획득)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Ⅱ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흥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요인Ⅱ는 '흥미'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박영신(1998)은 흥미를 어떤 대상, 활동, 경험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행동경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onnell과 Ryan(1984)은 재미있어서, 즐거워서와 같은 문항을 내재적 동기로 보았고, Eccles 등(1983)도 어떤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인Ⅱ는 학습활동에 동기가 부여되는 내재적인 행동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인Ⅲ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못하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모님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Ⅴ(기대충족)에서, 그리고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Ⅰ(유용성)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다. 요인Ⅲ은 전체적으로 보상, 벌의 회피, 인기, 자존감, 칭찬, 인정, 요구, 의무 등과 관련이 있는데 요인계수가 가장 높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나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의 보상이나 인기 관련 문항도 간접적으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어 요인Ⅲ은 '인정' 요인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Murray(1938)는 '인정'을 심리적 욕구의 하나로 특히 학생들의 학습과제와 관계있으며 성취수준에 영향을 주는 욕구로 설명하고 있다(정종진, 1996a).

요인Ⅳ는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등 6개 문항

www.kci.go.kr

이다. 이 중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문항은 요인Ⅱ(흥미)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Ⅳ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지식획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획득은 Maslow의 욕구위계에 따르면 성장과 존재에 관련된 욕구이기 때문에 요인Ⅳ는 '지식획득'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등 4개 문항으로 모두 자신에 대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대충족'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한편, 5개의 요인들 간 상호상관계수와 5개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각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06에서 .56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흥미 요인과 인정 요인 간에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며, 유용성 요인과 지식획득 요인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5개의 요인들은 완전히 상호 독립적이지는 못하고 다소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70에서 .88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5개 요인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계수 추정치와 전반적 적합도 지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x^2/df가 4.854로 모형 적합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증분적합지수에서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가 .805,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가 .827로 좋은 모델의 기준치인 .90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근사오차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이 .067로 좋은 모델의 기준치인 .05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델은 그 적합도가 다소 낮기는 하지만 비교적 양호한 모델로 인정할 수 있다(조현철, 1999; 배병렬, 2000 참조).

요인계수는 모든 문항들이 .444~.836으로 높은 편이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요인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인정 요인에 속해 있던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의 문항과 지식획득 요인에 속해 있던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의 문항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각 지식획득 요인과 기대충족 요인에 더 높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동기화 요인의 신뢰도 계수

요인	Ⅰ	Ⅱ	Ⅲ	Ⅳ	Ⅴ
Ⅰ	-				
Ⅱ	.325	-			
Ⅲ	.267	.060	-		
Ⅳ	.564	.543	.297	-	
Ⅴ	.475	.339	.404	.554	-
Cronbach' α	.823	.875	.802	.790	.702

www.kci.go.kr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계수 추정치와 전반적 적정도 지수

모 형	x^2	x^2/df	NFI	CFI	RMSEA
검증모델	1917.347	4.854	.805	.827	.067
문 항	요인Ⅰ 유용성	요인Ⅱ 흥미	요인Ⅲ 인정	요인Ⅳ 지식획득	요인Ⅴ 기대충족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444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613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720				
장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633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589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691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652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836			
공부가 내 적성에 맞아서		.782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762			
공부하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708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606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547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489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받지 않기 위해서			.659		
못하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601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610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574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531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				.611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647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719	
실력을 쌓기 위해서				.483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667	
공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510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481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485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687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566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465

www.kci.go.kr

성별 비교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고유치가 1.0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이 5개였고, 5개의 요인을 주고 요인행렬을 산출한 결과 표 5와 같은 요인구조와 요인계수를 얻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51.8%로 나타났다.

요인Ⅰ은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장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 9개 문항이다. 이 중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항은 요인Ⅳ(지식획득)에서,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Ⅲ(인정)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Ⅰ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대체로 유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용성'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Ⅱ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가 내 적성에 맞아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등 5개 문항이다. 이 중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문항은 요인Ⅳ(지식획득)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Ⅱ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흥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흥미'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Ⅲ은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못하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등 7개 문항으로 '인정'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Ⅳ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등 6개 문항으로 '지식획득' 요인으로 명명 할 수 있다.

요인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등 3개 문항으로 '기대충족' 요인으로 명명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고유치가 1.0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이 6개였고, 6개의 요인을 주고 요인행렬을 산출한 결과 표 6과 같은 요인구조와 요인계수를 얻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58.5%로 나타났다.

요인Ⅰ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가 내 적성에 맞아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 9개 문항이다. 이 중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문항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Ⅵ(경쟁)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Ⅰ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대체로 흥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흥미'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www.kci.go.kr

표 5. 남학생 집단의 요인구조 및 요인계수

문 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722**	.101	-.002	.083	.232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671**	.014	.181	.177	-.039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655**	.147	-.030	-.039	.369
장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638**	.149	-.158	.191	.079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627**	.043	-.116	**.449**	.098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571**	.142	-.025	.330	.320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529**	-.117	**.465**	.072	-.192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516**	.069	.195	.056	.013
공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47**	.315	-.031	.344	.229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060	**.852**	.020	.094	.054
공부가 내 적성에 맞아서	.104	**.814**	.028	.077	.062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093	**.786**	.037	.095	.108
공부하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144	**.679**	-.063	.314	.117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020	**.558**	.019	**.477**	-.107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받지 않기 위해서	-.070	-.038	**.693**	.127	.085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040	.078	**.691**	-.197	-.061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112	.216	**.670**	-.031	-.077
못하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029	-.105	**.631**	.263	.124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064	.108	**.612**	-.027	.339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	-.046	-.215	**.523**	.029	.249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313	.038	**.499**	.054	.290
실력을 쌓기 위해서	.269	.187	.047	**.628**	.058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073	.389	-.051	**.624**	.147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55	.256	-.015	**.613**	.183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271	-.112	.391	**.453**	.145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313	.027	.298	**.451**	.046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060	.285	.054	**.342**	.328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079	.059	.149	.212	**.677**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279	.105	.160	-.026	**.606**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142	.062	.211	.378	**.593**
고유치	7.071	3.465	2.368	1.410	1.239
설명분산(%)	23.570	11.550	7.894	4.699	4.129
누적설명분산(%)	23.570	35.120	43.014	47.713	51.841

www.kci.go.kr

표 6. 여학생 집단의 요인구조 및 요인계수

문 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요인Ⅵ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829**	.114	.000	.091	-.017	-.081
공부가 내 적성에 맞아서	**.780**	.154	.099	.185	-.049	-.187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767**	.060	-.011	.186	-.069	-.122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744**	.065	.057	-.060	.034	.253
공부하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736**	.195	-.023	.033	.185	.118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649**	.056	-.070	.010	.121	**.436**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568**	.177	-.043	.119	.175	**.432**
실력을 쌓기 위해서	**.537**	.355	-.047	.288	.192	.307
공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455**	.373	-.019	.279	.075	.357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73	**.738**	.015	.048	.006	.077
장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250	**.718**	-.031	-.042	.044	.029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064	**.715**	.068	.068	.166	-.020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242	**.665**	.010	.102	.146	.196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014	**.637**	.108	.366	.069	.010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256	**.496**	-.047	**.449**	.004	.078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157	**.470**	**.465**	.289	.059	.058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049	.041	**.784**	.019	.020	-.098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141	.082	**.723**	.262	-.116	-.023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받지 않기 위해서	-.032	-.046	**.673**	.020	.299	.273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112	.004	**.562**	**.406**	.295	.016
못하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040	.012	**.478**	.338	.194	.293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142	.138	.287	**.644**	-.023	.047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270	.165	.126	**.618**	.181	.057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016	.093	.202	**.590**	.173	.191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	-.116	.070	**.413**	.041	**.601**	-.002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168	.113	.047	**.409**	**.582**	-.063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465**	.175	.029	.018	**.528**	.130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126	.299	.087	**.409**	**.520**	.223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145	.156	.158	**.470**	.069	**.595**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076	**.434**	.284	.169	-.153	**.442**
고유치	8.302	3.707	2.139	1.293	1.097	1.013
설명분산(%)	27.674	12.357	7.131	4.311	3.655	3.377
누적설명분산(%)	27.674	40.031	47.162	51.473	55.129	58.506

www.kci.go.kr

요인Ⅱ는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등 7개 문항이다. 이 중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Ⅳ(인정)에서, 그리고 '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Ⅲ(보상)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Ⅱ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대체로 유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용성'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Ⅲ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못하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등 5개 문항이다. 이 중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Ⅳ(인정)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인Ⅲ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대체로 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상'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Ⅳ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등 3개 문항으로 '인정'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Ⅴ는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등 4개 문항으로 '기대충족'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해서' 문항은 요인Ⅲ(보상)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문항과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Ⅳ(인정)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문항은 요인Ⅰ(흥미)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어 요인Ⅴ는 다른 요인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Ⅵ은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등 2개 문항으로 대체로 '경쟁' 요인으로 명명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에게 뒤떨어지기 않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Ⅳ(인정)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문항은 요인Ⅱ(유용성)에서도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고 있어 요인Ⅵ 또한 요인Ⅴ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인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동기 요인으로 남학생은 5개 요인, 여학생은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설명량에 있어서 남학생은 유용성(설명량 23.6%)-흥미(설명량 11.6%)-인정(설명량 7.9%)-지식획득(설명량 4.7%)-기대충족(설명량 4.1%)의 순으로, 여학생은 흥미(설명량 27.7%)-유용성(설명량 12.4%)-보상(설명량 7.1%)-인정(설명량 4.3%)-기대충족(설명량 3.7%)-경쟁(설명량 3.4%)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남녀간 요인수와 요인구조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의 요인이 무엇이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암묵적 이론 접근에 의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학습행동에 관련된 동기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이끌어내고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이고 그러한 학습활동을 열

www.kci.go.kr

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그 원인을 문항으로 하는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학습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암묵적인 동기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동기 요인은 유용성, 흥미, 인정, 지식획득, 기대충족의 5개 요인이었고, 남녀별 학습동기 요인수(남학생의 경우 유용성, 흥미, 인정, 지식획득, 기대충족의 5개 요인; 여학생의 경우 흥미, 유용성, 보상, 인정, 기대충족, 경쟁 의 6개 요인)와 요인구조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시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학습동기 요인에 비하여 암묵적 이론 접근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 요인의 종류가 적다. 예를 들어 Sweet와 Guthrie(1996)가 몰두, 호기심, 의욕, 친애감, 복종, 인정, 경쟁, 작업회피의 8가지 동기 요인이 있음을 밝혔고, Wigfield와 Guthrie(1997)는 이러한 8가지 요인 외에 보상, 효능감, 중요성을 추가하여 11가지 동기 요인이 있음을 밝혔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 흥미, 인정, 지식획득, 기대충족의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는 동기 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한 것(명시적 이론)과 어떤 동기 요인이 존재하리라는 추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암묵적 이론)을 분석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시사하는 것은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명시적 이론에서 설명하는 복잡하고 많은 독립된 원인 때문에 학습동기가 유발된다기보다는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복합되어 있는 몇 가지 원인 때문에 학습동기가 유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명시적 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몰두, 호기심, 의욕, 도전, 친애감, 복종, 인정, 경쟁, 작업회피, 리더십, 보상, 유능감, 효능감, 자존감, 중요성, 재미, 목표, 만족, 지식획득, 벌 등의 학습동기 요인들이 대부분 본 연구에서 밝혀진 유용성, 흥미, 인정, 지식획득, 기대충족의 5개 요인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유용성 요인 속에 목표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고, 흥미 요인 속에 호기심과 만족의 원인이, 인정 요인 속에 보상과 자존감 및 자랑의 요인이, 그리고 지식획득 요인 속에 경쟁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암묵적 이론 접근에 의한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으로 유용성, 흥미, 인정, 지식획득, 기대충족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동기가 유발된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교수전략으로 흥미와 호기심 유발을 통한 주의집중, 유용성 인식을 통한 관련성 높이기, 긍정적인 기대감 형성 등을 통한 자신감 확립, 인정이나 보상 및 학습경험에 대한 내재적 즐거움 지원 등을 통한 만족감 일으키기의 네 단계를 들면서 학습자를 동기화 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Keller(1984)의 ARCS 이론을 잘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나타난 학습동기 요인(유용성, 흥미, 인정, 보상, 지식획득, 기대충족, 경쟁)과 관련 문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동기의 명시적 이론들 중에서 Skinner의 강화이론, Attkinson과 Eccles 등의 기대-가치이론, Ames와 Dweck 등의 성취목표이론, White의 효능이론, Covington의 자기가치이론, 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론을 각각 부분적으로 지지해주

www.kci.go.kr

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 직전교사교육과 현직 연수교육에서 학습동기이론을 다룰 때 이와 같은 이론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들의 남녀별 학습동기 요인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유용성, 흥미, 인정, 지식획득, 기대충족의 5개 요인,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흥미, 유용성, 보상, 인정, 기대충족, 경쟁의 6개 요인으로 나타났고, 동기요인의 구조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남학생은 장래 생활에의 유용성 때문에 가장 학습동기가 유발되는 반면에 여학생은 공부에 대한 흥미 때문에 가장 학습동기가 유발되며,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지식획득 때문에 여학생은 보상과 경쟁 때문에 학습동기가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학습동기 요인이 다소 다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유효현(200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이동희(2002)의 연구결과와 초등학교 3학년의 내재적 동기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4~6학년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이은주(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습동기의 성차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성역할의 강화와 관련 있는(Hill & Lynch, 1983; 이은주, 2000 재인용)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여하간 초등학생 학습지도와 학업상담을 할 때 이같은 남녀별 학습동기 요인을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교수학습장면과 학업상담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습하려고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다(김용래, 2000)는 말처럼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보다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킴으로써 학생 자신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송상호, 2001)이라고 볼 때,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학습동기 요인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양명희(2000)는 학업성취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학습전략의 습득 및 인지를 조절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여 학습자가 성취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가 초등학생들 학습동기 요인을 잘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학업상담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동기유발 강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심우엽(2002)이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로 '취직'을 선택했고 두 번째로 '능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결과에서 약 25%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학습동기 요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I 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학업상담과 진로상담을 할 때에 학습동기의 유용성 요인을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

www.kci.go.kr

저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학습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용 학습동기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을 탐색하고 확인하였지만 밝혀진 동기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더불어 초등학생들의 현재 학습동기 수준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밝혀진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을 토대로 학습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초등학생의 학습활동이 낮게 동기화 되어 있다면 어떤 동기요인이 낮은지를 확인하여 이를 증진시켜주기 위한 지도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 비교에 그쳤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별 비교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발달경향을 파악하고 그 후 학습동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종단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의 인구학적·특성학적 배경변인과 학습동기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대순 (2000). 비학업 자아개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수 (2001). 학습 및 흥미 활동에 관련된 동기화 요인에 대한 암묵적 이론 접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김아영 (2002). 교실에서의 동기. 2002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pp.11-48

김옥분 (2001). 수업동기와 성격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용구 (1999). 자아개념·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17**, 3-39.

김지연 (2000).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교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배병렬 (2000).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전: 도서출판 대경.

박영신 (1998). 흥미검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저), 교육학 대백과사전(pp.1080-1089). 서울: 하우동설.

송상호 (2001). 매력적인 수업의 필요성과 방안. 교육마당, 20**(4)**, 116-125.

심우엽 (2002a).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심우엽 (2002b). 연령에 따른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14(3), 19-44.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탐색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 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양수정 (1997). 암묵적 이론 접근을 통한 학업지능과 실험적 지능의 구성개념 확인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효현 (2000).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동희 (2002). 초등학교 아동의 지능 및 창의성

www.kci.go.kr

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순묵 (1995). 요인분석Ⅰ. 서울: 학지사.

이은주 (2000).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14(1), 47-66.

정종진 (1996a). 학교학습과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정종진 (1996b). 동기 연구의 인지적 경향과 그 교육적 시사. 교육심리연구, 10(1), 93-121.

조현철 (1999). LISREL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도서출판 석정

허숙행 (2004). 암묵적 접근에 의한 초등학생의 교과학습활동 동기화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Brophy, J. E. (1998).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New York: McGraw-Hill.

Connell, J., & Ryan, R. (1984). A developmental theory of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eacher Education Quarterly*, *11*, 64-77.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Eccles, J. et al. (1983). Expectancies, values, and academic behavior. In J. T. Spence(Ed.),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es* (pp. 75-146). San Francisco: W. H. Freeman.

Eccles, J., Wigfield, A., Harold, R., & Blumenfeld, P. (199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achievement self-perceptions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64*, 830-847.

Keller, J. M. (1984). Use of the ARCS model of motivation in teacher training. In K. E. Shaw(Ed.), *Aspects of educational technology XVII. Staff development and career updating*. New York: Nichols.

Ritter, D. E. (1988). Curriculum content today and tomorrow: Will students be motivated to lear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03-443.

Skinner, E. A., & Belmont, M, J. (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71-581.

Sternberg, R. J.,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Stipek, D. (1998). *Motivation to learn: From theory to practice*(3rd ed.). 전성연・최병연 공역 (1999). 학습동기. 서울: 학지사.

Sweet, A. P., & Guthrie, J. T. (1996). How children's motivations relate to literacy development and instruction. *The Reading Teacher*, *49(8)*, 660-662.

Wigfield, A., & Guthrie, J. T. (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to the amount and breadth of their reading. *Journal of Psychology*, *89(3)*, 420-432.

Woolfolk, A. E. (1998). *Educational psychology*(7th ed.). Boston: Allyn & Bacon.

1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0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1. 2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8, Vol. 14, No. 1 (특집호), 167～186.

A Factor Analysis of Motivation To Learn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ng-Jin Jeong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rom the perspective of implicit theory, what elements influence children's motivation to learn and how their configura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different sexes. One analysis was based on answers to a motivation questionnaire by fourth to sixth graders from four different cities in South Korea. The subjects children were most highly motivated to learn were math and science for boys, and math and English for girls, respectively. Factors influencing the motivation were near 30 in number, including later happier life, joy of learning, parental rewards, pleasure of being informed, and meeting parental expectations, among others. Another analysis was an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n motivation to learn among 856 fourth to sixth graders randomly sampled from 7 different cities all over South Korea. Factors revealed to contribute to the motivated learning here were five factors of utility, interest, recognition, knowledge acquisition(being informed), and expectancy sufficiency.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factors between sexes; importance was given to five factors of utility, interest, recognition, knowledge acquisition, and expectancy sufficiency in descending order for boys, and six factors of interest, utility, rewards, recognition, expectancy sufficiency, and competition for girls.

Key words : motivation to learn, implicit theory

www.kci.go.kr